

#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8. 4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8
IV. 국제신인도 .....	11
V. 종합의견 .....	12

## I. 일반개황

면적	447천 km <sup>2</sup>	G D P	675 억 달러 (2017년)
인구	31.7 백만 명	1 인 당 GDP	2,128 달러 (2017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om
대외정책	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지속	환율(달러당)	5,122 (2017년)

-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,1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천연가스(1.1조 m<sup>3</sup>), 원유(6억 배럴), 우라늄(6만 5,600톤), 금(1,700톤)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기존의 에너지, 광물, 금 등 자원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,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을 통한 가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.
- 2016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88.6%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자유화, 환율제도 개혁, 외환자유화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중 내륙국이라는 취약한 지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운송망과의 연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-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이후, 타지키스탄, 키르기즈, 투르크메니스탄, 카자흐스탄 등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, 기존의 주요 협력국가인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역, 투자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 <sup>e</sup>	2018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8.1	8.0	7.8	6.0	6.0
재정수지 / GDP	3.4	0.8	0.4	0.6	1.0
소비자물가상승률	9.1	8.5	8.0	12.9	12.7

자료: IMF

□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침체와 건설, 농업 부문의 성장률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

- 2017년에는 환율단일화에 따른 급격한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침체와 건설, 농업 부문의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.0%에 머물렀으며,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6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환율단일화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, 이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

- 2017년 정부의 환율단일화와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.9%를 기록하였으며,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12.7%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2017년 9월 5일 정부는 환율제도를 단일화하고, 공식환율을 시장환율 수준(4,210숨/달러 → 8,100숨/달러)으로 인상하였으며, 이는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.
- 2017년 6월 말, 중앙은행은 환율단일화를 앞두고 환율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9%에서 14%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음.

## □ 재정수지 흑자 지속

- 2014~2016년 국제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인프라 및 연금지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비중이 줄어들었으며, 2017년 3월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다시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늘어나고 있음.
- GDP 대비 재정수지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014년의 3.4%에서 2015년에는 0.8%, 2016년 0.4%로 점차 하락하였으며, 2016년 이후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2017년 0.6%를 기록하고, 2018년에는 1.0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수출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에너지 자원, 면화,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.
-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21.7%, 금과 면화의 비중은 각각 15.7%, 10.4%로 이 원자재들의 비중이 47.8%를 차지하고 있음.
- 1990년대 한국기업에 의해 발전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조업의 발전이 취약하여,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며 제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.

#### □ 낮은 경제자유도 지속

- 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, 정부의 영향력, 시장 조정의 효율성, 시장 개방 정도 등의 항목으로 평가되는 헤리티지 재단(Heritage Foundation)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2018년 평가대상 180개국 가운데 152위를 기록함.
-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 41위, 키르기즈 78위, 타지키스탄 106위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(169위)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변국들보다 낮은 경제자유도를 기록하고 있음.

## 나. 성장 잠재력

### □ 천연가스, 원유,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,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진

○ 2016년 기준 천연가스 1.1조 m<sup>3</sup>,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금, 우라늄, 구리 등의 광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자원개발과 수출을 통해 사회,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음.

- 최대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2016년 기준으로 연 628억 m<sup>3</sup>에 달하고 있으며,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중국 등이며, 국가별 수출 규모는 러시아 33억 m<sup>3</sup>, 카자흐스탄 26억 m<sup>3</sup>, 중국 15억 m<sup>3</sup> 등임.

○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.

-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단지를 완공하였으며, 칸담 가스화학 단지를 건설하고 있고, GTL(Gas-to-Liquid)\*, MTO(Metanol-To-Olefin)\*\* 등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<sup>1)</sup>

\* GTL(Gas-to-Liquid) 프로젝트는 슈르탄(Shurtan) 가스화학단지 인근에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건설하여 정유제품(디젤, 등유, 납사, LPG)을 생산하는 사업이며, 2016년 11월 현대엔지니어링·현대건설 컨소시엄, Enter 엔지니어링이 26억 달러의 EPC 계약을 체결함.

\*\* MTO(Metanol-To-Olefin) 프로젝트는 가스화학공장에서 생성된 천연가스를 MTO 공정을 통해 올레핀,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사업임.

- 2017~2021년 동안 18억 8,000만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사마르칸드, 나망간, 수르한다리아 등에 5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13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, 먼저 사마르칸드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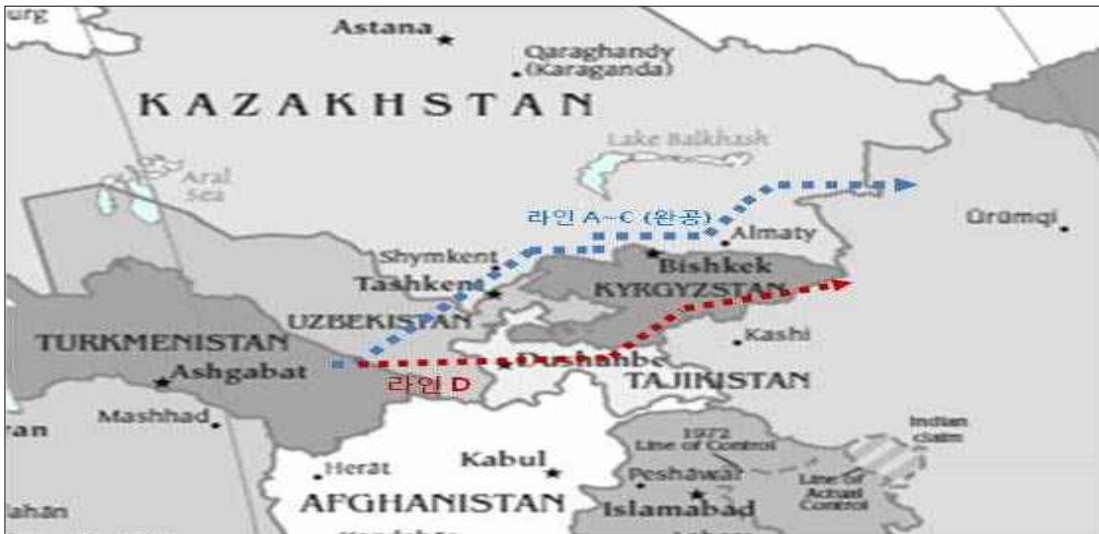
### □ 국제 운송망과 에너지 수송망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 잠재력 보유

○ 2016년 완공된 안그렌-팜 철도를 안디잔으로 연결하는 전철화를 추진하며, 국제철도 운송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1) 한국수출입은행, 「유망진출산업 분석시리즈 (3) 우즈베키스탄」, 2017년 5월. p. 18.

- 이 철도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, 중국을 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며, ADB가 8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.
-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, 새로운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-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된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,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, 키르기즈를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음.

< 그림 1 >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



주: 라인 A-C : 1, 2, 3 차 가스관, 라인 D : 4차 가스관

자료: 윤지현, 「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대외적 변수와 해결과제」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6년 3월, p. 14.

□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인구 증가 추세

- 2017년 기준으로 인구수는 3,17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며, 중등교육 취학률도 95%에 달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.
- 인구는 1991년 독립 직후 2,060만 명에서 2000년 2,465만 명, 2010년 2,856만 명, 2017년 3,17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,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.78%에 이르고 있음.
- 2017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60.5%, 15세 미만 인구가 30.1%를 기록하고 있으며, 평균 연령은 28.5세로 풍부한 노동력

을 보유하고 있음.

#### 다. 정책성과

□ 2017년 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령으로 '2017~2021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발전전략'을 발표하고 추진

○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1년까지의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 임기 동안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함.

- 5대 추진 방향은 경제발전과 자유화, 정부와 사회의 제도 확립, 법치 보장과 법제도 시스템 개혁, 사회안전망 향상, 안전보장과 민족간 화합 및 종교적 관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이 가운데 '경제발전과 자유화'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및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, 경제의 현대화와 산업다각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, 농업 현대화 및 발전, 경제에서의 정부 비중 축소 및 개인 소유권 강화와 중소기업 활성화, 각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감소 및 낙후 지역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.

□ **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**

○ 2018년 2월 대통령령으로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7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도입함.

- 사마르칸트, 부하라, 히바 등에서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.

-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, 이스라엘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터키, 일본 등 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음.

○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호텔이나 도로, 통신, 공공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재건개발펀드(UFRD: Uzbekista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und)는 2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계획함.

## □ 미르지요예프 경제자유화, 개방화 정책

- 2017년 9월 정부는 시장환율을 폐지하고 공식환율로 환율을 단일화하였으며, 이는 국민경제생활 전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투자의 최대 문제점인 외환 관리제도 개선
  - 2017년 2월 1일부터 천연가스, 곡물, 광물 등을 비롯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기업 수출 소득의 의무 환전비중을 기존의 50%에서 25%로 인하하였으며, 8월에는 의무 환전 조항을 폐지하였음.
  - 또한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외환보유고를 중앙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함.
-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, 주요 국제신용기관의 신용등급 획득을 추진하는 등 경제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며,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.

## 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14	2015	2016	2017 <sup>e</sup>	2018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1,069	470	498	632	180
경 상 수 지 / G D P	1.7	0.7	0.7	0.9	0.3
상 품 수 지	-1,835	-500	286	63	-317
수 출	12,903	11,500	11,196	11,483	11,573
수 입	14,738	12,000	10,910	11,420	11,890
외 환 보 유 액	13,544	12,404	11,581	15,036	17,529
총 외 채 잔 액	13,311	14,854	16,283	17,761	19,325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1.1	22.7	24.4	26.3	28.4
D S R	4.8	6.4	7.2	7.9	8.4

자료: IMF, EIU, OECD.



## □ 경상수지 흑자규모 및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

- 주요 수출품인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증가 추세임.
  -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,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6년의 0.7%에서 2017년 0.9%로 상승하였으며, 2018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0.3%의 흑자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외환보유액은 2016년에 1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, 원자재 수출소득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2018년에는 17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
## □ 총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, GDP 대비 낮은 총외채잔액 비중

- 총외채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며,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증가 추세이나 비중은 낮은 수준임.
  - 총외채잔액은 2016년의 163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78억 달러, GDP 대비 비중은 2016년의 24.4%에서 2017년에는 26.3%로 소폭 증가하였음.
  - 2018년에는 총외채잔액이 193억 달러, GDP 대비 비중이 28.4%로 전망되며 여전히 낮은 수준임.
- 외채원리금 상환비율(D.S.R.)은 증가추세이나 2017년 7.9%에 불과하여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.

## Ⅲ. 정치·사회 동향

### 1. 정치안정

-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르지요예프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안정적인 정권 계승

-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7.8%, 득표율 88.6%의 높은 지지율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.
- 2016년 9월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부터,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장관과 주요 국영기업들의 사장들을 교체하며,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계승함.

## 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### □ 주변국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활동 지속

- 아프가니스탄 북부, 타지키스탄, 파키스탄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 단체인 우즈베크이슬람운동(IMU), KIB 등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.
- 아프가니스탄, 파키스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IMU는 2000년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으며, 2015년에는 이슬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(IS)와의 협력을 선언하기도 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.
- 2018년 3월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, 시리아에서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무장 그룹인 KIB(Katibat Imam al Bukhari)을 국제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음.

## 3. 국제관계

### 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, 키르기즈 등 주변국들을 방문하여 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 추진

-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즈와 국경문제에서 갈등관계에 있었으며,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9월의 키르기즈 방문을 통해 국경협정에 서명하여, 양국의 국경분쟁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음.
-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2018년 3월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에 걸림돌이었던 수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논의하였으며, 직항로 개설, 철로 연결 등을 통해 향후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- 2011년 폭발로 운행이 중단되어 왔던 우즈베키스탄의 아무장과 타지키스탄의 후샤디를 연결하는 철도가 2018년 3월 개통되었으며, 개통식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이 참석하였음.
- 2017년 양국은 주2회 직항로를 개설하였으며, 이를 통해 양국간의 사회,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추세

-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,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(SCO)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에도 참여하고 있음.
-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19.7%, 수입의 21.8%를 차지하고 있음.

#### □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협력 지속

-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(CSTO),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, 그동안 러시아와의 정치적 협력에 소극적이었으나,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- 2012년 6월 말 러시아 주도의 CSTO에서 탈퇴하고,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반대하며,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여 왔으며, 구소련 지역에서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러시아 주도로 추진되는 EAEU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.
- 2017년 이후,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광산 공동 개발에 합의하였으며, 신규 가스전 지분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매각, 러시아산 헬리콥터 도입 등 원자력, 가스, 군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하고 있음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□ ECA 여신 잔액은 14억 6,360만 달러, 일부 금액에 대해 연체

- 2017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3억 8,940만 달러, 중장기 10억 7,420만 달러이며, 중장기 여신 가운데 10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음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□ OECD 6등급 유지

- OECD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2008년에 6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음.
- 3대 신용평가기관인 S&P, Moody'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OECD	6등급 (2018. 1)	6등급 (2017. 1)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2년 1월 29일(북한과는 1992년 2월 7일)

□ 주요협정: 세관협력협정('99), 형사사범공조조약('04), 사회보장협정('06),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('09), 근로활동협정, 군사비밀보호협정(이상 '12), 관광협력협정('13)

<표 4> 한·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	2015	2016	2017	주요품목
수출	1,284	928	1,180	자동차부품, 자동차, 원동기 및 펌프

수 입	16	20	18	천연섬유사, 제지원료
합 계	1,300	948	1,198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해외직접투자(2017년 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277건, 6억 8,270만 달러

## V. 종합의견

- 2017년에는 에너지 자원 등 원자재 국제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침체와 건설, 농업 부문의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.0%에 머물렀으며,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6.0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이었던 이중환율제도 폐지, 수출기업 의무환전제도 폐지,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2017년 2월 '2017~2021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발전전략'이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으며, 경제발전과 자유화, 정부와 사회의 민주주의 개혁 및 제도 확립, 법치 보장과 향후 법제도 시스템 개혁 등을 비롯한 5대 주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- 주변국인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인 미국, EU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선임연구원 조영관(☎02-6255-5759)

E-mail: ykj@koreaexim.go.kr